

# 中國의 석유산업 (II)

## 5. 대외개방기의 석유산업

1978년에 이르러 中國은 정치적 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채택했다. 그때까지의 자력갱생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제외국의 자본·기술을 도입하면서, 국내 산업에도 많은 자본·기술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석유탐사활동면에서는 中國해역에 대해 외국석유기업에 의한 탐사 위험투자를 생산분여(分與)계약하에 도입키로 하였다. 한편 늦게 출범한 석유화학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외국으로부터 석유화학플랜트의 도입을 계획, 1970년대 전반에 그에 관한 계약을 외국기업들과 체결하는 바, 이는 문화혁명이 끝나 대외개방기에 들어설때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中國의 대외개방정책은 서서히 진행된다. 처음에는 어렵짐작으로 추진했으나 그것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서면서부터는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경제정책이 방향전환하는 바람에 어느 시기에는 조정기를 거쳐 외자도입등도 정제하는 적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개방정책에 변화는 없이 해외차관·기술도입이 이어졌다. 석유산업에 있어서도 1978년이후 많은 플랜트가 도입되었으며 또한 차관에 의한 외화를 이용해서 여러 외국전문회사로부터 기술도입이 이루어졌다. 외국의 기술 및 자본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走資派」라고 비난하던 「민족파」는 어쩔수 없이 밀려난 것이다.

개방정책을 채택하기 직전인 1970년대 중반에 갑자기 OPEC에 의해 원유가격이 대폭 인상되었을 때, 中國석유산업은 大慶油田의 증산으로 일대비약을 했다. 中國은 세계유수의 산유국에 끼여들게 되면서 광대한 영토에 아직 발견되지 못한 대유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정책당국은 에너지계획의 일환으로서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할 것을 기획하는 동시에 大慶油田급의 대유전을 앞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 걸쳐 원유생산량이 연간 1억톤을 약간 넘는 수준에서 정체했다. 신규매장량의 추가발견은 불충분한 상태였다.

그런속에서도 원유가격이 이란혁명후 제2차 석유위기로 인해 배럴당 30달러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국의 석유수출수입은 많아졌다. 그것이 최대이었던 '80년대 전반에는 총액 200억달러 이상에 달했다. 그러나 1986년에 원유가격이 폭락하자 석유수출수입도 급감하였다. 중국은 예상된 수출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수출량을 확대해야만 했다.

中國의 석유개발은 주로 1980년대 전반에 대륙봉

해역에서 대규모로 시도되었다. 1978년 이래 외국 석유회사에 의한 석유탐사투자를 생산물분여조건으로 도입기로 함으로써 많은 외국석유기관의 원조 및 조인을 받아 法制를 정비하는 한편 海洋石油總公司라는 국영 석유기구를 설립, 해역의 석유광구를 국제입찰에 부쳤다. 渤海, 黃海, 南中國海, 北部灣 등 중국해역에서는 외국석유회사의 경비부담으로 물리 탐사가 사전에 행해지고 그 데이터와 함께 鑛區가 매출되는 것이다. 여기에 많은 석유회사가 참가하여 '80년대 전반에 석유탐사가 활발해졌다. 中國해역에서 누계 30억달러 이상의 탐사투자가 함께 100여 개회사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굴착시굴정이 200개 이상에 달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적이었다. 그 이상의 리스크 부담을 안지 못하는 외국석유회사들은 잇따라 석유탐사에서 철수하였다.

결국 中國으로서는 종합적석유정책을 충분히 확립하지 못한채로 정유산업만 전국각지로 발전했다. 석유의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이 충분한 연관성을 갖지 못한채 석유가 어느정도 솟아나리라 믿고 건설된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정책적으로는 석유보다 석탄에 주력한 공급체제를 수립하고 에너지절약도 추진되었다. 그후 석탄생산은 크게 신장되었으나 공해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中國의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배분은 석탄산업이나 전력산업에 비해 낮게 잡혀왔다. 에너지공급의 주체로서는 석탄생산이 가장 중요하며, 에너지의 소비는 전력부급이 주요과제가기 때문이다. 석유산업에의 투자는 그 다음가는 규모인데, 그러나 석유산업에는 외국차관이나 탐사·개발투자등을 어느정도 예상한 결과로서의 정부예산이 배분되는 것이다.

## 6. 中國석유산업의 전망

광대한 영토와 海域에는 석유자원의 잠재적매장량이 많으며 석유탐사가 아직 착수되지 못한 퇴적분지도 있으므로 中國은 앞으로도 발견가능성이 있는 油田도 제법 있는 편이다. 주요퇴적분지는 38개소로서 전국도의 1/3이다. 그곳에 부존하는 석유매장량은 300억톤 내지 600억톤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이지 확인매장량은 아니다.

탐사작업으로 油田이 발견된 후 그 매장량조사가

명확한 결과를 얻은 것이 확인매장량이다. 中國전체로 현재 확인매장량은 10~12억톤 정도이다. 새로 발견되는 추가매장량이 매년 원유생산으로 감소된 분량을 보충하는 정도에 따라 확인매장량이 가감된다. 근래의 中國은 거대유전을 발견치 못하였다. 필자로서는 1986년에 중국의 확인가채매장량을 15~16억톤으로 추정했으나 지금은 10~12억톤으로 감소했다고 본다.

영토의 크기로 보면 美國에 비교되지만 석유개발면에서는 中國의 역사가 일천하고 석유탐광밀도(퇴적분지의 단위면적당 과거 탐광량)도 낮다. 또한 기회면에서 中國의 석유 탐사·개발횟수가 美國만큼 많아진다면 많은 유전이 발견되고 많은 原油가 생산될 법 하다. 그러나 석유탐사자금이 국가에서 할당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인 중국에서는 소관부처인 地質省과 에너지省(※石油工業省이 흡수되었음)에서는, 국내각지방 地質局을 통해 투입되는 석유탐사자금이 매우 한정적이다. 美國의 기업들이 이익을 목표로 석유탐사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현재상황에서 中國대륙의 석유탐사는 그 탐광밀도가 美國내지 北美과 비슷한 성과를 거둘수 없다. 때문에 그런 점을 해소키위해 바다쪽에서 생산물분여방식의 계약으로 외국기업의 탐사투자를 도입한 것인데 해양지역 탐사성과도 시원치 못했다.

지금 中國에서는 기존 油田지역(東北, 華北, 西北地域)에서의 중점적인 탐사·개발에 힘쓰고 있다. 大慶, 勝利, 遼河油田등의 주변부도 깊은 지층까지 탐사함으로써 새로운 배사구조가 발견되어 油田으로 개발되기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지역에서의 탐사활동은 주로 西北地域중 오르도스, 二連, 陝이담, 타림지방등의 퇴적분지에서 추진되는데 타림盆地는 대형유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西北邊方의 타림지역은 사막속에 환경이 혹독하므로 유전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그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비가 무척 높다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림을 본격 탐사·개발키로 결정한 것은 大慶油田에 이어 두번째로 큰 油田基地化 할것을 목표로한 때문이다. 석유자금도 이곳에 집중투입시키면서 많은 두뇌와 기자재를 할당할 것이다. 타림의 유전개발은 적어도 10년의 리드타임이

필요하다. 그 이전에는 이미 개발된 유전에서 생산감소를 막기 위해 잔량을 뽑아내는 2·3차回收法을 실시하며 아울러 주변에 소규모油井을 뚫어볼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勝利油田과 遼河油田등에서의 미개발구조를 개발해내는 것이다.

서기 2000년의 中國 원유생산목표는 연간 2억톤이다. 지금수준의 개발상황으로 판단하면 그 목표달성이 아주 힘들 것으로 보인다. 원유생산량은 1990년에 1억4,000만톤 이하로서 목표치 1억5,000만톤에 미달했다. 무엇보다도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액이 총체적으로 적었다. 中國의 에너지산업에는 석탄과 전력산업의 증산이 급선무이므로 자금배분도 그쪽이 우선이다. 석유산업에는 현재 연간 200억 원 이상이 배분되지만 그것으로 장차 석유수요증대추세에 대처하기는 불충분하다. 세계은행, 日本輸出入銀行 등에서 차관에 의한 외자도입을 하여 油田의 재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이는 전향적개발이라기 보다는

사후대책적인 것이다. 석유정책상의 과거의 실패 즉 탐사추진 미흡으로 인해 추가매장량 보충이 불충해 진다는 것이 현재 문제되고 있다.

#### 〈석유의 정제·유통·수출입〉

다음으로 석유산업의 하류부문을 보자.

원유생산이 증가하면서 전국각지에 정유공장이 건설되었다. 석유제품 수요는 주로 연료가 매년 증가했다(발전용, 공장보일러용, 수송용). 제품공급은 수요에 맞추지 못해 타이트한 채로 각종기업·기관등 소비자에게 배급제로 할당된다. 앞으로도 석유 수요 증대는 분명하며 소비억제현상도 계속될 것이다. 석유제품을 다량소비하는 산업은 엄격히 제한되며 가능한 최소의 석유소비가 권장된다. 이미 에너지절약의 추진책으로 화력발전이 석유에서 석탄연료로 전환되었다. 향후는 주로 수송부문에서 가솔린과 輕油를 중심으로, 그리고 석유화학용 원료를 포함해서 수요증대가 계속되리라 예측된다.

中國의 석유산업 투자액 (1985~89)

(단위: 억 원)

	年 度	석유·천연 가스개발	석유개발	가스개발	석유정제 · 가공	인조석유	정 제	計	지질조사 탐 광
기 본 건 설	1985	27.07	22.09	4.98	6.10	-	6.10	33.17	7.25
	86	29.75	28.18	1.57	8.86	-	8.86	38.61	7.11
	87	42.22	40.65	1.57	16.33	-	16.33	58.55	7.33
	88	61.08	59.46	1.62	25.37	0.16	25.21	86.45	4.64
	89	71.98	70.18	1.80	21.53	-	21.53	93.51	5.17
경 신 개 조	1985	9.15	8.03	1.12	5.76	0.03	5.73	14.91	0.28
	86	10.32	9.58	0.75	6.79	0.03	6.76	17.11	0.33
	87	11.84	10.66	1.18	9.61	0.01	9.60	21.45	0.24
	88	27.64	24.65	1.56	15.17	0.03	14.94	42.81	0.24
	89	25.95	24.37	1.58	13.22	0.19	13.03	39.17	0.23
기 타	1985	94.07			0.17			94.24	
	86	97.75			0.58			98.33	
	87	112.15			0.25			112.40	
	88	108.15			0.41			108.56	
	89	미 상			미 상			미 상	
투 자 총 액	1985	130.29			12.09			142.38	
	86	137.82			16.27			154.09	
	87	166.23			26.35			192.58	
	88	196.89			42.11			239.00	
	89	미 상			미 상			미 상	

〈주〉 투자총액은 지방기업체등 소액투자 포함

〈자료〉 中國통계연감

中國의 정유공장은 생산지油田에 직접연결하는 방식(大慶, 勝利)과 도시소비자에 직결하는 방식(北京, 上海, 南京등)의 두가지이다. 원유생산 5,000만톤/年 이상을 10년이상 계속해온 大慶油田의 원유를 정제하기 위한 정유공장이 동북지방 3 個省에 특히 발달했다. 大慶原油는 유전으로부터 항구(大連, 秦皇島)까지 파이프·라인으로 보내지는데 그 사이 각지에 많은 정유공장이 있으며, 또한 그 송유관은 수도 北京의 東方紅정유공장에 연결되며 특히 北韓에도 연결된다. 勝利油田, 華北油田의 원유도 송유관으로 선적항구인 黃島(靑島부근)에 보내지며 魯寧파이프·라인으로 남하하여 南京까지 송유된다.

中國石油化工總公司에 소속된 정유공장은 현재 35개로서 총정제능력 1억1,300만톤이다. 이들 정유공장은 수송부문에서 수요증대되는 輕質제품 및 중간유분을 제조하기위해 45% 정도가 2차처리설비(분해·탈황등)를 갖추어서 국제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제품생산실적은 연간단위로 1988년에 1억톤 이상에 달하고 지금은 1억1,000만톤 수준이어서 가동율이 90% 이상으로 높은 편. 앞으로도 개질장치등을 증설하면서 품질향상에 성과 올릴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中國의 석유무역은 근래에 변하고 있다.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에 더하여 수입도 증가해온 것이다. 국내석유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1989년에 석유제품 수입량이 수출량을 약간 넘어섬으로써 석유수입국이 된셈이다. 이런 경향은 원유에서도 해마다 나타난다. 원유무역도 드디어는 大慶原油 수출분을 상쇄하는 수입원유가 더 많아질 것이다.

광대한 대륙인 이나라에서는 大慶原油와 장래의 타림原油를 국내에서 정제하여 소비하는것 보다, 주로 남쪽 沿海地域에서 中東原油 또는 인도네시아原油를 수입·정제하는 쪽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므로 원유수입은 앞으로 더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中國의 무역정책은 가격불안정성을 보이는 석유 중심에서 제조품중심(현재는 섬유제품)으로 바뀌었다. 석유는 생산품을 국내에서 소비하는 편이 수출에 의해 外貨가득하는것 보다 경제성이 높아졌다(※ 원유가격이 22\$/B 이하일때 그러함). 이런 형편에

국내 지리적 여건이 불리하므로 남쪽 바닷가지역에는 中東으로 부터의 수입원유를 정제하는 공장이 上海, 福建, 廣州, 茂名등지에 발전할 것이다. 다만 大慶原油의 對日本수출은 계속되어 1990년 이후에도 신규무역협정에 따라 수출량이 조금 증가한 저유황 원유를 계속 보낼것으로 관측된다. 大慶原油는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부가시켜서 석유제품으로 수출하는 편이 경제성이 있으므로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中國이 장차 원유생산 한계점에 달하고 내수물량은 증대함에 따라 原油 및 석유제품의 수입국이 된다는 것은 아시아지역 석유공급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인도네시아原油의 수출량도 점차 줄어드는 마당에 귀중한 저유황원유가 아시아지역 시장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지는 일이다. 불안정한 中東지역에 原油도입선을 구하는 것은 中國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점에서 향후 석유정책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 II. 中國석유산업과 국제석유시장

### 1. 석유와 에너지시정

#### (1) 中國석유산업의 국제적위치

1989년 실적으로 中國의 원유생산은 소련(1,215만 B/D) 美國(764만 B/D) 사우디아라비아(51만 B/D) 이란(286만 B/D) 이라크(282만 B/D)에 이어 제6위인 278만 B/D였다(※ PIW誌 추정). 석유매장량 및 생산능력면에서 보면 당분간은 中國이 세계 5위, 6위일 것이다. 그러나 인구 11억을 생각하면 1인당 산유량이 매우 낮아서 석유대국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견해가 국내에서 나오고 있다.

확인매장량은 1988년말 약 31억톤(236억 배럴)로서 세계확인매장량의 2.6%, 제10위를 점한다(※ BP 통계, 89년판). 구국가채매장량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불충분이다. 다만 美國의 마스터즈 앤드 존슨社의 추정으로는 구국가채매장량이 80~90억톤으로서 中東산유국들, 멕시코, 베네수엘라에 이어 7위를 마크한다.

#### (2) 심화되는 국내석유부족

80년대 후반에 들어 중국의 국내석유부족은 해마다 더해갔다. 그 원인은 수요신장세가 예상을 뛰어

넘는 경향임에 비해 공급실적은 계획치를 밑도는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1982년에 中國은 「2,000년까지 공업총생산을 1980년 수준의 4배로 늘린다」는 4가지 근대화안을 내놓았다. 에너지면에서는 생산 2배가 목표였는데 실은 에너지절약을 촉진함으로써 전체적 이용효율을 2배로 높인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1980~85년 제6차계획기간에 연평균 10%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한편, 1차에너지 소비는 동기간중 4.9% 증가로 나타나 에너지 절약목표는 충분히 달성된 셈이었다. 더욱이 1차에너지생산은 6.1% 신장되어 수출력도 증대하였다. 특히 석유는 생산이 4.3% 증가함에 반하여 소비는 0.9% 증가에 머물렀으므로 수출분이 늘어났다.

그런데 1985~90년의 제7차계획을 보면, 경제성장이 10%를 계속하는 가운데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6%로 높고 생산은 4%로 낮은 증가율이다. 때문에 심각한 에너지부족을 겪어 공장전력부족으로 유향

설비율이 30% 이상에 달했다. 또한 1989년은 天安門사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은 7% 전후로 그리고 에너지소비는 4~5%로 낮아졌다.

〈표 2-1〉에서 제시되었듯이 석유분야도 제7차계획기간에 정세가 많이 변하였다. 즉 석유생산은 1987년 이후 2% 정도 증가에 그치고 天安門事態가 벌어진 '89년에는 겨우 0.4% 증가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소비쪽은 6% 증가를 보였으며 '89년에도 5%나 증가되었다(※中國 통계연감). 1987년 이래의 석유생산을 저하에는 '86년의 원유가격 폭락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 2. 석유수출입의 최근동향

### (1) 수출

中國의 석유수출은 제6차계획기간에 크게 늘어났다. 원유수출은 1980년 1,331만톤에서 '85년 3,117만톤으로 2.3배가 되고 제품수출은 동기간 303만톤에서 635만톤으로 2.1배나 증가했다. 석유

〈표 2-1〉 中國의 석유수급 추이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 1차에너지 생산(A)						
표준탄, 만톤	63,735	85,546	88,124	91,266	95,801	99,603
증가율, %	-	6.1	3.0	3.6	5.0	4.0
· 원유생산, 만톤(B)	10,594.5	12,489.5	13,068.8	13,414.0	13,687.4	13,745.1
증가율, %	-	3.4	4.6	2.6	2.0	0.4
B/A, %	23.8	20.9	21.2	21.0	20.4	19.7
· 1차에너지 소비(C)						
표준탄, 만톤	60,275	76,682	80,850	86,632	92,000	-
증가율, %	-	4.9	5.4	7.2	6.2	-
· 석유소비, 만톤(D)	8,757.4	9,168.8	9,728.0	10,312.2	11,012.4	11,563.0
증가율, %	-	0.9	6.1	6.0	6.8	5.0
D/C, %	20.7	17.1	17.2	17.0	17.1	-

자료 : 중국통계연감

수출금액은 80년 41.2억달러에서 85년 69.1억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제7차계획기간에는 생산을 크게 상회하는 내수의 증가로 말미암아 석유수출이 하강할 수 밖에 없었다. 原油輸出은 85년 3,117만톤에서 88년 2,605만톤으로 낮아졌다. 동기간 제품수출도 635만톤에서 479만톤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89년 速報에서도 원유수출이 2,439만톤으로 제품

수출은 474만톤으로 감소하였다.

수출금액은 86년의 원유가격폭락으로 인해 크게 감소하였는 바, 85년 69.1억달러에서 86년 30.7억달러로 절반이하 수준이 되었다. 87년에 약간 회복했으나 88년의 두번째 가격폭락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이런 결과로 석유수출액이 中國총수출액에서 점하는 비중은 85년 25.5%에서 88년 6.9%로 크게 줄었다.

(2) 수입

석유수입은 상술한 수급구조를 반영하여 80년대 후반에 급증하였다. 80년대 전반에는 原油와 석유제품을 합한 수입량이 80만~90만톤에 불과했으나 86년에는 350만톤, 88년 393만톤으로 늘어나더니 89년에 이르러 原油 326만톤-제품 535만톤 합계

석유수입이 861만톤에 달했다(※89년분은 速報值).

(3) 석유수출입 구조

유종별·상대국별로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原油의 輸出先은 日本이 압도적이어서 50% 전후를 점한다.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 北韓, 美國, 브라질, 필리핀이 주요 수출대상국이다.

〈표 2-2〉

中國의 석유수출입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수출〉						
원유(만톤)	1,331	3,117	2,850	2,723	2,605	2,439
제품(만톤)	303	635	546	494	479	474
計(만톤)	1,634	3,752	3,396	3,217	3,084	2,913
수출액(억달러)	41.2	69.1	30.7	39.1	32.6	-
총수출액비(%)	22.5	25.5	9.9	9.9	6.9	-
〈수입〉						
석유수입(만톤)	82.7	90.0	350.1	323.4	393.1	860.8

〈주〉 석유수입은 원유+석유제품임.

〈자료〉 중국통계연감

〈표 2-3〉

中國의 주요국별 원유수출

(단위: 10,000톤)

	1986	1987	1988
日 本	1,341.0	1,396.7	1,467.2
싱 가 포 르	685.2	479.9	445.0
美 國	328.1	286.3	292.6
브 라 질	262.1	207.5	58.5
北 韓	122.3	123.7	120.2
터 어 키	57.2	48.3	48.5
필 리 핀	48.0	94.4	60.6
뉴 질 랜 드	-	10.7	-
루 마 니 아	6.0	74.9	68.7
호 주	-	-	3.8
計	2,849.9	2,722.4	2,604.5

〈주〉 1988년에는 不明 39.4만톤 포함

〈자료〉 海關統計

원유수출은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는 수단이 될 경우가 많으며, 이른바 友好貿易(외교적) 성격도 띠운다. 최근 수년간 원유수출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日本을 향한 수출이 늘어났음은 주목할만 하다. 싱가포르쪽으로는 수출은 위탁정제방식이 많으며 80년대에 들어서부터 中南部 연안공업지역의 석유부족을 보충하기위해 위탁정제가 증가했다. 그러나 85년의 850만톤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편 석유제품은 휘발유와 나프타의 수출이 많고 다음으로 輕油, 燈油, 重油이며 윤활유도 조금 있다. 경유의 수출대상은 싱가포르와 홍콩이 많은데 그곳을 중개지로 하여 인근제국에 轉賣된다고 볼 수 있다.

〈표 2-5〉와 같이 輸入 측면을 보면, 종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 구입해오던것이 1988년 이후 中東산유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석유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부족한 輕油는

싱가포르에서, 다음으로 부족한 가솔린과 나프타는 소련에서 輸入한다. 또 重油는 싱가포르에서, 홍콩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89년에는 제품수입(535만톤)이 제품수출(475만톤)을 처음으로 상회했다. 앞으로는 우호무역과 바터무역을 포함해 외화획득을 위

한 輸出은 남겨놓겠지만, 국내 석유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輸入 특히 제품수입은 크게 증가할 수 없는 형편일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에 原油를 갖고 들어가 위탁정제해오는 방식도 줄어들고, 原油나 석유제품의 직접수입방식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 金鍾七역〉

〈표 2-4〉

중국의 주요국별 석유제품수출

(단위 : 10,000톤)

		1986	1987	1988
가 솔 린 · 나 프 타	日 本	123.2	126.8	94.2
	美 國	90.7	92.9	27.0
	싱가포르	11.2	4.5	77.2
	홍콩	7.8	6.5	5.2
	기타	0.6	2.7	1.5
計		233.5	233.4	205.1
등 유	日 本	19.3	23.3	26.0
	홍콩	17.2	16.8	17.2
	싱가포르	-	3.5	2.5
	기타	0.7	0.8	0.9
計		37.2	44.4	46.6
경 유	싱가포르	112.1	31.6	34.4
	홍콩	47.1	56.4	59.2
	日 本	25.9	35.7	39.6
	말카오	9.2	8.6	8.0
	필리핀	5.5	2.9	-
	기타	4.6	4.8	3.0
	計	204.4	140.0	144.2
중 유	日 本	24.6	31.7	34.9
	홍콩	19.5	20.7	23.6
	美 國	2.4	-	-
	기타	-	-	0.4
計		46.5	52.4	58.9
운 활 유 · 기 타	美 國	6.0	4.6	2.8
	日 本	6.0	4.5	6.1
	태국	3.8	4.7	5.4
	홍콩	2.5	3.8	3.3
	기타	5.7	6.4	6.8
	計	24.0	24.0	24.4
총	계	545.6	494.2	479.2

〈자료〉 海關統計

오늘의 무관심이 재해의 싹 키운다.

<표 2-5>

中國의 주요국별 석유수입

(단위 : 10,000톤)

	1986	1987	1988
1. 원 유			
인도네시아	43.5	-	11.5
말레이시아	2.1	-	10.5
計	45.6	-	88.5
2. 제 품			
(1) 가솔린·나프타	10.2	12.9	18.2
소련	9.8	12.0	10.9
美國	0.2	0.1	0.1
싱가포르	0.1	0.6	3.5
日本	-	-	1.5
기타	0.1	0.2	2.2
(2) 등유	0.12	1.0	2.2
싱가포르	-	-	1.6
홍콩	0.05	-	0.4
美國	0.06	0.1	0.1
기타	-	0.9	0.1
(3) 경유	143.8	166.7	238.3
싱가포르	122.0	98.1	169.4
소련	7.0	23.0	18.9
사우디	-	2.0	11.3
U A E	-	5.9	17.4
美國	5.9	7.7	8.1
기타	8.9	30.0	13.2
(4) 중유	39.1	11.5	38.0
싱가포르	27.2	6.9	17.7
홍콩	5.3	2.9	20.0
日本	-	1.1	0.2
기타	6.6	0.6	0.1
(5) 윤활유등	3.2	6.1	9.9
총계	242.0	198.2	395.1

<자료> 海關統計

□ 신간도서 □

# The Petroleum Industry in Korea 1991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펴냄 -